사 설

건축법 8조4항의 문제

정부가 행정규제 완화조치의 일환으로 건축법 제 8조4항을 개정하자 불교계에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돌출하고 있다. 그동안 사찰주변의 자연환경과 수행환경을 보호하는 울타리 구실을 해온 법적 장치를 걷어냄으로써 앞으로 무분별한 환경파괴가 일어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원래 건축법 제 8조4항의 입법취지는 신축 건축물이 미관을 해치고 주변환경과의 부조화를 방지하기 위한 문화환경보호적 발상에 의한 것이었다. 이번에 정부가 이 조항을 폐지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보다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축허가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조리를 차단하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인 결과다. 그러나 이는 개인의 사적 이익만을 보장하는데 급급해서 공공의 이익이라는 측면을 무시한 개악이다.

어째서 그런가는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다. 구산선문의 하나였던 법흥사, 제9교구 직지사, 한국불교 최고수행도량인 문경 봉암사, 전통사찰인 선산 원각사 등이 당장 어려움에 빠지고 있다.

차단막이 사라지자 벌써부터 사찰주변에 사유지를 가진 사람들이 자연환경과 수행환경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천년 수행도량 코밑에 대형음식점과 위락시설을 짓겠다고 나선다는 것이다. 이렇게 가다가는 그 피해가 어디까지 미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형편이다.

문제가 이렇게 생기게 된 데는 무엇보다도 정부가 이 문제를 좀 더 사려깊게 따져보지 않은 것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 당초 건축법 8조4항을 존치할 때는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였다. 민원이 따르고 부분적인 문제가 있어서 개정을 한다면 이를 보완할 대책은 무엇인지를 먼저 충분히 연구했어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규제완화'라는 목표 하나만을 생각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그 결과가 이렇게 어이없는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종단의 행정력 부재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이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지난해 이미 입법예고를 했는데도 종단은 팔짱만 끼고 있었다. 그러다가 개정건축법이 시행되자 뒤늦게 발을 동동 구르는 형국이다. 이 법이 국회로 넘어가 개정될 즈음에는 종단분규로 아무도 여기에 관심을 기울일 여유가 없었던 것은 이유가 안된다. 이미 개정된 법을 다시 고치거나 보완하려면 얼마나 힘든 가를 생각할 때 종단의 관련 부서 관계자들의 늑장대응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전후사정이야 어찌 됐든 이제 급하게 된 것은 불교계다. 이 문제에 대한 사후적 보완이 없을 경우 많은 사찰은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고 만다. 만약 엘리자베스 여왕이 찾아갔던 안동 봉정사 같은 유서 깊은 전통사찰 앞에 어울리지 않는 먹자판이 들어선다면 얼마나 흉칙하겠는가. 이는 불교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화정책적 차원에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다.

불교계와 관계당국은 건축법 개정에 따른 반문화적 반환경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하게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그 방법으로서는 다시 건축법을 재개정해서 8조4항을 부활 존치하거나 전통사찰보존법을 비롯한 관련법령에 경내지 인접지역의 개발을 규제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결코 불교계의 종교적 이기주의 때문이 아니다. 사찰의 수행환경과 자연환경 보호가 곧 국가의 문화의식과 연관돼 있다는 점을 관계자들은 깊이 인식해야 한다.

"신도수계 체계화 시급"

조계종 포교연구실 '포교방법 개발 의식조사' 결과 발표

불교교양대 수강생 전문직종사자 비율 높아져

불교교양대학이 다양한 직종의 신도와 남성불자의 확보 통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도의 수계가 계율 수지에 대한 절차나 교육과정 등에 대한 체계 없이 무질서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신도교육 및 수계제도의 확립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실장 화암)이 21일 발표한 '포교방법 개발을 위한 의식조사 결과'에서 파악된 것. 이번 조사는 포교연구실이 지난 98년 10월부터 전국 30여 사찰 법회에 참석한 일반 불자 682명과 불교교양대학 수강생 391명 등 1,073명을 대상으로 한 '불자들의 종교생활 및 포교에 대한 의식조사'와 스님 132명, 포교사 749명 등 881명을 대상으로 한 '포교 종사자의 의식조사' 결과를 근거로 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교대학 수강생 중 전업주부(30.6%)의 비율은 여전히 가장 높지만 자영업자(28.1%)의 분포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의사 변호사 교육자 언론인 등의 전문직(10.6%)이나 회사원(7.8%), 군인 경찰을 포함한 공무원(8.6%)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한편 수계제도의 관리에는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응답자의 31%가 수계를 받지 않았으며, 보살계 수계자의 82.6%인 266명이 신도의 기본계인 오계 수계조차 받지 않은 채 곧바로 보살계를 수계한 반면 17.4%만이 오계와 보살계를 함께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불자들의 평균 신행기간은 12.7년이며, 응답자의 50.4%가 10년 미만의 신행기간을 나타냈고, 경제난이 극심해진 1998년 한해만 응답자의 11%가 불교에 입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앙이유로는 불자의 50.9%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20.7%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18.5%가 성불하기 위해 불교에 귀의한 것으로 나타나 세간의 평가와는 달리 불자들이 기복성이 약하고 일상성이 강한 경향을 보여줬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한국불교 승직제도' 5월7일 학술회의

조계종 불학연구소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도원)는 5월 7일 중앙승가대학교 정진관에서 '한국불교 승직제도의 역사와 현실'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연다.

김영태 전 동국대교수가 '삼국 통일신라시대의 승직제도'를, 허응식교수(한국정신문화연구원)가 '고려시대의 승직제도'를, 이봉춘교수(동국대)가 '조선시대의 승직제도'를, 박경훈씨(역경위원)가 '한국근대승직제도'를, 종범스님(중앙승가대교수)이 '한국현대 승직제도와 승가규범'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한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종단 토지매각 이전비 확보"

조계종 승가대특위 案 제시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이전공사비 확보방안으로 종단소유의 땅을 매각하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조계종 중앙승가대김포학사 대책특위(위원장 종하)는 22일 소위원회를 열고,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이전공사 자금조달방안으로 직할사찰인 경기도 부천의 흥천사 토지를 매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매각예정 토지는 30필지 1만2천여평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계사 및 태고사 명의의 토지 실태파악을 통해 매각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소위원회는 흥천사 토지매각은 재감정을 통해 종무회의에 보고하는 한편, 조계사와 태고사 소유의 토지는 충분한 현황파악후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소위원회는 또 중앙승가대 이전 특별분담금 미납금을 빠른 시일내에 납부토록 교구본사에 촉구하기로 했다. 이밖에 속초 보광사를 조계종으로 이관해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이은자 기자

"신도증 만듭시다"

탤런트 남일우-김용림씨 가족 조계종 신도증 홍보용사진 촬영

"온 가족이 신도증을 만듭시다."

불자 탤런트 김용림씨 가족이 조계종 신도등록 홍보용 포스터에 등장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련스님)은 21일 오후 서울 강남 봉은사에서 조계종 신도증 홍보용 포스터 및 리플렛 제작을 위해 원장 정련스님 등 포교원 소속스님, 남일우(61)·김용림(59)씨 부부와 아들 남성진(30)씨, 봉은사 신도 등을 출연시켜 사진을 찍었다.

서울 삼성암 신도인 김용림씨 가족은 이번 촬영을 계기로 가족 모두 조계종 신도증을 만들어 명실상부한 불자 집안이 되었다. 불교방송에서 9년째 '신행 365일'을 진행하고 있는 김용림씨(붓다회 회장)와 불교전문 책방 여시아문을 자주 찾으며 불교공부에 열심인 남일우씨, 아들 남성진씨는 가장 모범적인 탤런트 가족으로도 유명하다.

◇신도등록 홍보용 사진을 촬영한 남일우씨 가족.

한편 포교원은 현재 15만2천여명이 신도등록을 했다고 밝혔다. 신도 등록을 원하는 불자들은 재적사찰에 사진 3매와 교무금 1만원을 제출하고 신도등록 서식을 작성하면 된다.

김재경 기자

전국 불교사회복지대회 연다

5월 12일 세종문화회관

전국 불교사회복지대회가 5월 12일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부처님 오신날 봉축위원회가 주최하고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 단위의 불교사회복지대회라는 점에서 불교사회복지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전망된다.

대회는 사회복지시설단체운영 및 자원봉사자, 사회복지 후원, 사회복지진흥 등 네 부문에 걸친 공로패 수여식과 '정보화시대의 가톨릭 사회복지 전망' '정보화시대의 불교 사회복지 전망'에 대한 주제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현호·법일스님 제적

조계종 재심호계원 확정

조계종 재심호계원(원장 월서)은 21일 14차 심판부를 열어 현호, 법일스님에 대해 제적의 징계를 확정하는 등 15명의 징계를 결정했다. 돈명(은해사 부주지), 기연스님에 대해서는 심리를 연기했다.

△자용(수국사 주지), 각진-공권정지 5년 △현일, 원경-공권정지 3년 △정인-공권정지 2년 △덕조-공권정지 1년 △진육-면직 △각신, 각원, 법명, 계선-문서견책.

정성운 기자

조계종 종헌종법 전문 등 개정논의

조계종 종헌·종법개정특위 소위원회(위원장 정휴)는 20일 회의를 열고 종헌·종법 개정을 위한 전문을 비롯 24장의 종헌 가운데 8장 중앙종회 부분까지 검토하며 논의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위가 종헌·종법 개정과 관련해 기관지를 통해 접수한 의견 가운데는 △교육원과 포교원의 통합 △본사주지의 종단 입법, 예산, 종책수립에 참여 보장 △본사주지의 종회의원 당연직 겸직 △비구니 부서 신설 등의 제안 △본사주지를 본사 자율 또는 중진 협의 추대 △종회의원 투표권자 승납 상향 등 종단기구 개편과 선거제도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알 림

TV 인터넷 불교정보사업 시작합니다

컴퓨터의 '컴'자도 모르는 '컴맹'도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집에서 보는 TV에 인터넷TV 수신기만 설치하면 간편하게 인터넷 검색에서 PC통신 전자우편까지 다양한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TV리모콘으로 작동하는 '인터넷 안방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불교정보화에 앞장서온 본사는 홈TV인터넷과 함께 '인터넷 TV'에 불교정보를 독점 제공합니다. 또, 인터넷 TV를 통해 종단 종무행정 네트워크와 포교에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정보화 사업을 개시합니다. 인터넷 TV에 가입하시면, 종단이나 사찰의 각종 공문, 법문자료 등을 인터넷TV로 송·수신할 수 있으며 불교뉴스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종단과 사찰, 불자 가정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 가입 문의: 현대불교신문 전략정보실
(02)732-1520·737-8881

현대불교신문사

현대만평

박구원

이렇게 되서야…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99 한국불교예술대전
Korea Buddhism Expo'99

'99 한국불교예술대전

-37일간의 불교예술여행 4월30일부터 6월5일까지

1600여년! 민족의 삶과 함께한 장구한 불교문화!

이제 새천년을 맞아 우리민족의 삶속에 깊이 뿌리내렸던 전통불교예술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선조들의 예술혼과 하나되는 만남의 장인 '99한국불교예술대전이 신라천년의 고도! 부처님의 자비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경주에서 열립니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을 포함한 25개 종단이 범불교적으로 참여하는 이번한국불교예술대전은 '2000년 세계불교EXPO'의 전초로서 한국불교예술의 우수성과 진수를 한자리에 모아서 민족의 염원과 화합을 다지는 한마당이 될것입니다. 부처님의 그윽한 미소와 선조들의 단심어린 예술혼, 현대인들의 삶이 하나되어 어울리는 축제의 한마당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벤트

●종단의 날 - 25개종단의 문화소개 및 포교활동
●큰 스님 대법회
●화혼의식 - 불교 전통 혼례의식 재현
●선무도 무술시범 -스님들의 야외무대 무술시범
●스님 레크레이션 -스님이 진행하는 관람객과 함께하는 무대공연
●공모행사
-찬불가 공모행사
-불교 합창제
-불교 관련 캐릭터 공모
●공연
-육법공양의식
-대구불교방송예술단
-꽃공양 대법회
-영산재
-인간문화재 엄옥자의 춤
-박연진 무용단
-박진희 상명여대 무용단
-이정화 전통춤
-김미숙 무용단
-변지연의 춤
-부산여대 행경 무용단
-엄옥자 한국민속 무용단
-김미자 무용단
-양길순 무용단
-이명미 무용단
-아미타 보컬(Rock Live Concert)
-불자가수 공연
-시연 퍼포먼스
-동국 국악 예술단

전 시

●주제관
・영상관 - 불교문화 다큐멘터리 영상 자료 상영
・전시관 - 한국불교 역사,문화,의식,실물모형전시
・법 당 - 법당 복원 및 관람객 예불의식 참여
・공연장 - 불교 관련 특별초청 공연
●예술관
・미술관 - 전통회화,조각,현대미술,목판화,의상전,사진전
・유물관 - 문화재급 사찰 유물전시
・건축관 - 불교사찰 건축양식과 건축모형
●체험관 (작가들의 시연등을 통한 우수한 불교문화 체험)
※체험프로그램
-팔만대장경 판각, 만다라, 선화, 불화, 민화, 한지 제작 체험
●용품관 (불교소품 전시 판매)
●전통사찰 음식관 (사찰음식 소개 및 시식공간)
●사리친견

■장소 : 경주 보문단지 세계문화EXPO 행사장
■주최 :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주관 : 한국불교예술대전 조직위원회

'99한국불교예술대전 조직위원회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장 오 고 산

한국불교예술대전조직위원회
서울 TEL:(02)736-7293~7 FAX:(02)736-7298
경주 TEL:(0561)745-0374~5 FAX:(0561)745-4221
http://www.buddhismexpo.co.kr